

예열 모의고사 2회

구분	No	화제어 / 작품	출처 / EBS 연계
독서	1	독서론	자체 제작 지문
	2	데이비드슨의 물리주의와 비판	자체 제작 지문 (수특 p.93 심리 철학의 물리주의적 이론들)
	3	손해 배상 책임	자체 제작 지문 (수특 p.267 급부 불능의 유형과 유상 계약의 담보 책임)
	4	식품 첨가물	자체 제작 지문 (수완 p.140 식품 첨가물)
문학	5	전황당인보기	자체 제작 지문 (수완 p.221)
	6	오랑캐꽃, 파발 가에서, 창	자체 제작 지문 (수완 p.230 오랑캐꽃, 수특 p.103 파발 가에서)
	7	정진사전	자체 제작 지문 (수특 p.125)
	8	출새곡, 영언십이장	자체 제작 지문 (수특 p.300 출새곡, 수특 p.326 영언십이장)

스피드 정답

1. ④

2. ①

3. ②

1. 답 ④

[정답 해설]

1문단에 따르면, 독서 토론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소감이나 의견을 나누는 활동으로,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비경쟁 독서 토론에서도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 토론 중에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등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비경쟁 독서 토론은 규칙을 정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독서 토론은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거나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등 독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각자 느낀 점을 정리하고 성찰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책을 통해 깨달은 바를 더 확장하고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독서를 마친 후 활동으로도 독서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비경쟁 독서 토론에서는 책을 읽은 후 모둠을 나눠 모둠 지기를 중심으로 책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즉,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독서 토론 중에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2. 답 ①

[정답 해설]

2문단에 따르면, ㉠(경쟁식 독서 토론)에서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논점이 분산되기 쉽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2문단에 따르면, ㉠(경쟁식 독서 토론)에서 참여자는 책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책의 내용에 대한 성찰은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비경쟁 독서 토론)에서 참여자는 책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의 정답을 찾거나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토론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에서는 참여자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여 이기려 하기보다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비경쟁 독서 토론)에서 참여자는 책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의 정답을 찾거나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토론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에서는 참여자가 책의 내용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경쟁식 독서 토론)에서는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는 분위기가 과열되기 쉬우며 그 결과 책의 내용에 대한 성찰은 등한시하게 될 수 있다. 반면 ㉢(비경쟁식 독서 토론)에서 참여자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토론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책에 더욱 몰입하게 될 수 있다. 즉, ㉢과 달리 ㉠에서는 책의 내용에 대해 성찰하기는 것보다는 참여자가 토론에서 이기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3. 답 ②

[〈보기〉 분석]

〈보기〉는 비경쟁 독서 토론을 진행하려는 학생들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비경쟁 독서 토론의 진행 방법) 가운데, 3문단에 제시된 방법을 〈보기〉에 제시된 학생들의 제안과 연결 지어 이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 내용	비경쟁 독서 토론 진행 방법
학생 1 (㉡)	토론이 끝난 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면 좋겠음	마지막으로 각자 느낀 점을 정리하고 성찰한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부합함
학생 2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간단한 낱말 퍼즐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읽기 전에 게임과 같은 몸풀기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에 부합함
학생 3 (㉣)	모둠 지기는 어떤 의견이 제시될지를 예측하고 토론의 진행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하겠음	모둠 지기는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부합하지 않음
학생 4 (㉤)	모둠 지기는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하면서 참여해야 하겠음	모둠 지기는 제기된 질문과 의견을 정리하고 이전에 제기되었던 질문과 의견이 형성된 과정을 다른 모둠에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부합함
학생 5 (㉥)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여유 있게 기다려주어야 하겠음	모듬지기는 개입을 최소화하여 모듬원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에 부합함

[정답 해설]

〈보기〉에 따르면 학생 3의 제안은 모듬 지기가 어떤 의견이 제시될지를 예측하고 토론의 진행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듬 지기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듬 지기는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에 따르면 학생 2의 제안은 즐겁고 편안하게 책을 읽은 감상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보기〉에 따르면 학생 4의 제안은 모듬 지기가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토론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보기〉에 따르면 학생 5의 제안은 모듬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보기〉에 따르면 학생 1의 제안은 독서 토론 과정에서 참여자가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깨달은 바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스피드 정답

4. ④

5. ②

6. ④

7. ③

8. ⑤

9. ②

4. 답 ④

[정답 해설]

(가)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동일성을 주장하기 위한 데이비드슨 이론의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나)에서는 데이비드슨의 사례 동일론을 비판하며 이 이론의 논리적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글 전체의 흐름 파악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속성을 분류하지는 않았다.
- ② (가)에 제시된 데이비드슨의 견해가 전통적인 관점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나)가 유형 동일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 ③ (가)에 제시된 데이비드슨의 견해에서는, 개별 사례의 식별 기준으로 속성을 배제하고 외연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는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인과관계와 동일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본 정보일 뿐, 개별 사례의 식별 기준을 중심으로 (가)가 전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는 사례 동일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지, 인과관계의 예외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다.
- ⑤ (가)에서는 데이비드슨의 이론을 서술했다. 하지만 (나)에서는 데이비드슨의 사건 동일론이 가진 문제점을 제기할 뿐, 데이비드슨의 이론에서 파생된 새로운 이론을 비판하지는 않는다.

③ (가) 2문단에 따르면, 데이비드슨은 인과관계에서의 사건은 개별 사례를 의미한다고 보며, 개별 사례는 특정 사공간에서 단 한 번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똑같이 반복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나) 1문단에 따르면, 유형 동일론은 '고통'이라는 정신적 사건 유형이 '뇌의 C-섬유 발화'라는 물리적 사건 유형으로 환원된다고 보았지만, 다중 실현 논변은 이를 비판하며 '고통'이 인간의 신경 구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생물 체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즉 다중 실현 논변은 '고통'이라는 정신적 사건 유형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 체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으므로, '뇌의 C-섬유 발화'라는 특정 물리적 사건 유형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본다.

⑤ (가) 2문단에 따르면, 데이비드슨은 개별 사례는 속성만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태풍 매미의 발생'이라는 개별 사례는 '강풍'이라는 특정 속성만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본다.

6. 답 ④

[정답 해설]

데이비드슨이 제시한 일상적 세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에는 인과적 작용이 있다.
2. 인과관계의 성립에는 사건들 간의 예외 없는 엄격한 법칙이 필요하다.
3. 물리적 현상은 인과적으로 완결된 닫힌 체계이고, 정신적 사건은 예외 없는 법칙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모두 인정할 때, 법칙의 영역이 될 수 없는 정신적 사건이 엄격한 법칙이 필요한 인과관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주제에 직결된 핵심 내용 파악

[오답 해설]

- ①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을 야기할 수 없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을 발생시킨다는 원리'에 위배된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세 가지 원리를 모두 인정했을 때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은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포기할 때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법칙이 사건 유형 사이의 관계라는 설명은 지문에 등장하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므로, 해당 선지의 진술은 ㉠과는 관련이 없다.
- ⑤ (가) 4문단에 따르면, 정신적 언어를 물리적 언어로 바꿔 기술하면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비드슨이 ㉠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5. 답 ②

[정답 해설]

(나) 1문단에 따르면, 유형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 유형과 물리적 사건 유형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형 동일론이 정신적 개별 사례와 물리적 개별 사례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가) 2문단에서 제시한 '개별 사례'와 '사건 유형'의 구분을 (나)까지 끌고 와야 하였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기본 정보 파악
& 문단 간 연결

[오답 해설]

- ① (가) 2문단에 따르면, 데이비드슨은 인과관계에서의 사건은 개별 사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데이비드슨은 개별 사례가 원인 항과 결과 항을 구성한다고 본다.

7. 답 ③

[정답 해설]

(나) 2~3문단에서 제시되는 사례 동일론을 비판하는 ㉔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인과관계의 성립에는 사건들 간의 예외 없는 엄격한 법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는 일상적 경험에 반한다.
2. 속성을 인과관계에서 배제하면 일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이 장치에 불과해진다.
3.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치환하면 정신적 사건 자체의 인과적 가치가 사라진다.

따라서 ③은 비판'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㉔의 입장에서 사례 동일론을 비판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비판 · 반박

[오답 해설]

- ① ㉔의 입장에서 사례 동일론이 물리 법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 ② 사례 동일론은 정신적 영역의 무법칙성을 일상적 원리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④ ㉔의 비판'에 따르면, 사례 동일론은 속성을 배제하고 외연을 인과관계의 성립 요소와 동일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사례 동일론이 속성을 동일성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내용은 ㉔의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속성을 배제하면 정신적 사건은 언어적 장치에 불과해지고, 인과적 실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이 ㉔의 비판'의 내용이다. 따라서 ㉔는 사례 동일론이 속성을 배제함으로써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실재로서의 의미를 없앴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의 언어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축소시켰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사례 동일론이 속성을 배제함으로써 '정신적 사건이 언어적 장치로서의 의미만 남게 된 것'이지, '정신적 사건의 언어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축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⑤는 ㉔의 입장에서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8. 답 ⑤

[정답 해설]

사례 동일론을 비판하는 입장은 속성을 배제함으로써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가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기>의 기능주의는 속성을 배제하면서도 정신적 사건이 실현되면 물리적 사건을 유발하는 인과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두 주장은 상충한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지문 내용과 <보기>의 유기적 연결 & 비교 · 대조

[오답 해설]

- ① 데이비드슨은 속성이 사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보기>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정신적 사건을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정의한다. 따라서 속성을 배제한 데이비드슨의 주장은 기능으로 정신적 사건을 정의한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② (나) 1문단에 따르면, 데이비드슨의 사례 동일론은 개별 사례 간의 환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개별 사례'라는 조건 위에서만 환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정신적 수준의 설명과 물리적 수준의 설명이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③ 정신적 사건 유형이 서로 다른 생물 체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다중 실현 논변의 주장은, 물리적 체계가 달라도 '고통'이라는 동일한 사건 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물리적 매질이 달라도 같은 입출력 기능을 수행하면 동일한 정신적 사건으로 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④ (나) 2문단에 따르면, 사례 동일론을 비판하는 입장은 '성향을 갖는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예외의 경우처럼 성향이 물에 젖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이 물리적 조건뿐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9. 답 ②

[정답 해설]

'대처하다'는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다중 실현 논변에 반론을 제기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따위에 반대하여 말하다.'라는 의미의 '반박하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받아들이다'는 '어떤 사실 따위를 인정하고 용납하거나 이해하고 수용하다.'라는 의미이다. '흡수하다'는 '빨아서 거두어들이다.'라는 의미로, 둘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③ '맞닥뜨리다'는 ' 좋지 않은 일 따위에 직면하다.'라는 의미이다. '거역하다'는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다.'라는 의미로, 둘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④ '생기다'는 '일어나거나 벌어지다.'라는 의미이다. '출생하다'는 '세상에 나오다.'라는 의미로, 둘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보다'는 '대상을 어떠한다고 평가하다.'라는 의미이다. '관찰하다'는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로, 둘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스피드 정답

10. ④

11. ④

12. ⑤

13. ③

10. 답 ④

[정답 해설]

2문단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성립한다. 한편, 5문단에 따르면 담보 책임은 매매 등의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재산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졌을 때 성립한다. 교환물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교환물이 제삼자에게 인도되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가 행사될 수 없게 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특정 목적물을 거래하는 계약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제삼자에게 인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담보 책임이 발생할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목적물을 거래하는 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가 불가능해지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만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기본 정보 파악

[오답 해설]

- ① 5문단에 따르면, 우연한 사정으로 교환물의 시가가 급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손해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 손해는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교환물의 가치가 증가하여 손해가 예상될 것을 매수인이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로 인한 손해가 배상 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즉, 계약상 인도가 되어야 할 교환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도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매수인이 교환물의 하자에 대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담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매수인이 교환물의 하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담보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담보 책임은 매매 등의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재산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졌을 때 성립한다. 이를 통해 담보 책임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재산을 교환하는 계약, 즉 쌍방의 의무가 있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당사자만이 의무를 지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5문단에 따르면, 하나의 사실로 인해 여러 종류의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면, 손해를 입은 자는 하나의 손해 배상 책임을 선택하여 청구해야 한다. 즉, 특정 사건으로 인해 여러 형태의 손해 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 가지 이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중복하여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1. 답 ④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와 같은 비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여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 즉, 손해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재산 가치의 평가가 어렵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공통 서술 범주에 입각한 비교·대조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불법 행위 책임은 계약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즉,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다양한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민법은 발생한 손해를 책임 있는 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손해 배상 제도를 마련하였다. 즉, 손해 배상 책임은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그 책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손해 배상의 범위는 선택된 책임에 의해 확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예측 가능한 손해인 통상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반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인 특별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별 손해는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예측이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피해의 경우 가해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5문단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또는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러한 과실을 알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손해를 입힌 자가 손해를 입은 자의 과실을 악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손해를 입은 자가 받을 손해 배상액을 일정 부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2. 답 ⑤

[정답 해설]

4문단에 따르면, 담보 책임을 지는 계약 당사자는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손해 배상 책임과는 다르게,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㉔(신뢰 이익의 크기는 이행 이익의 크기를 넘어설 수 없다)이다. 이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한계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행 이익을 초과하여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손해 배상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담보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이행 이익 이상의 이익까지 보장하는 것은 손해 배상을 지는 계약 당사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다고 보고, ㉔(신뢰 이익의 크기는 이행 이익의 크기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제한 원칙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행 이익을 초과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목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무과실 책임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과다하기 때문인 것은, ㉔의 이유로 적절하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밑줄 주변의 맥락 파악

[오답 해설]

- ① [정답 해설]에 따르면, ㉔는 이행 이익을 초과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목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무과실 책임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과다하기 때문이다. 한편, 3문단에 따르면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은 발생한 손해를 전부 복구하여 손해가 없었던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의 손해 배상 원칙에 해당하며, ㉔의 이유로도 적절하지 않다.
- ② [정답 해설]에 따르면, ㉔는 이행 이익을 초과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목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무과실 책임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과다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손해 배상의 한계를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손해 배상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힌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㉔의 이유로도 적절하지 않다.
- ③ [정답 해설]에 따르면, ㉔는 이행 이익을 초과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목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무과실 책임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과다하기 때문이다. 즉, 계약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의 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라도 적극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㉔의 이유로도 적절하지 않다.
- ④ [정답 해설]에 따르면, ㉔는 이행 이익을 초과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목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무과실 책임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과다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계약 범위 내에서만 손해 배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계약 당사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을 넘어서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㉔의 이유로도 적절하지 않다.

13. 답 ③

[<보기> 분석]

<보기>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X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발생한 손해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2~4문단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불법 행위 책임은 계약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혔을 때, 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재산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졌을 때 성립한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어떤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갑과 을은 X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이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 이행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갑이 화재로 인해 X 건물을 인도하지 못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을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상황에 대하여 세 가지 책임 유형 모두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3, 4문단에 따르면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와 같은 비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고, 담보 책임은 피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신뢰 이익의 크기는 이행 이익의 크기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을이 입은 정신적 피해 3천만 원은 비재산상 손해로서 불법 행위 책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조사 비용 4천만 원은 신뢰 이익으로, 이행 이익의 크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담보 책임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문단에 따르면 우연한 사정으로 교환물의 시가가 급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손해로 여겨지지 않지만, 특별 손해에서는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배상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X의 시가 급등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며, 화재 발생에 있어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을이 입은 정신적 피해 3천만 원은 비재산상 손해로서 불법 행위 책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조사 비용 4천만 원은 신뢰 이익으로서 담보 책임 대상이다. 즉, 을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와 달리 신뢰 이익에 대해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지문과 <보기>의 유기적 연결 & 비교·대조

[오답 해설]

- ①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조사 비용 4천만 원은 신뢰 이익으로서 담보 책임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X의 시가 급등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며, 화재 발생에 있어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도 갑이 X 시가가 오를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당한 시가만큼 특별 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을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와 달리 상당한 가격만큼 배상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는 채무 불이행 책임과 달리, 불법 행위 책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 사유를 증명해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와 달리 불법 행위 책임에서는 을이 갑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을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와 달리 X의 화재에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을이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조사한 비용 4천만 원은 이행 이익이 아니라 신뢰 이익에 해당한다. 애초에 이행 이익은 계약의 내용대로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조사 비용 4천만 원은 이행 이익에 해당할 수 없다. 즉, 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와 달리 조사 비용 4천만 원은 이행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담보 책임을 지는 계약 당사자는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을이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불법 행위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와 달리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X의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요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스피드 정답

14. ④

15. ⑤

16. ②

17. ①

14. 답 ④

[정답 해설]

4문단에 따르면, 한계 기준이란 위해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계값을 의미하며, 중요 관리점 감독 단계에서는 한계 기준을 벗어난 관리점을 확인하는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한다.

즉 개선 조치 대상은 한계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중요 관리점이 아니라, 한계 기준을 벗어난 중요 관리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기본 정보 파악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식품이 부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HACCP이 등장했다. 따라서 HACCP을 통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② 1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HACCP는 위해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 감독 순으로 진행되며, 위해 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관리점을 뽑는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 요소와 달리, 화학적 위해 요소는 존재 자체만으로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 즉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 요소는 존재 자체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금속이나 유리 등의 이물질은 존재 자체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한계 기준을 벗어난 중요 관리점에 취하는 조치에는 설비 점검 후 재공정 투입 등이 있다. 따라서 살균의 온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할 때 설비 점검 후 재공정에 투입될 수 있다.

15. 답 ⑤

[정답 해설]

일부 화학적 위해 요소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위해 지수는, 일일 노출량을 일일 섭취 허용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일일 노출량이 일일 섭취량보다 크면 위해 지수가 1보다 크게 계산되므로, 해당 화학 물질이 인체에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화학 물질이 일일 노출량이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크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공식 · 관계식 파악

[오답 해설]

- ① 위해성은 심각성 점수와 발생 가능성을 곱하여 평가한다. 이물질은 물리적 위해 요소에 해당하며, 물리적 위해성 역시 이물질이 일으키는 피해의 정도인 심각성 점수와 해당 이물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가능성인 발생 가능성을 곱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심각성을 발생 가능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생물학적 위해성 평가에서, 심각성은 미생물이 유발하는 질병의 수준인 병원성을 바탕으로 환산하므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이라면 심각성이 높을 것이다. 오염 가능성은 발생 가능성을 환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값으로, 심각성과는 관련이 없다.
- ③ 화학적 위해성 평가에서, 심각성은 화학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의 수준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해당 화학 물질이 '미생물을 제거하는' 독성의 수준으로 환산된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서로 다른 범주의 내용을 뒤섞어 구성한 전형적인 오답 선지이다.
- ④ 위해 지수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 물질에 한해 상세히 계산한다. 화학적 위해 요소는 농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장기적 피해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위해 요소를 대상으로' 위해 지수를 계산한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6. 답 ②

[정답 해설]

[〈보기〉 분석]

—〈 보 기 〉—

최근에는 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HACCP이 주목을 받는다. 스마트 HACCP은 센서가 실시간으로 중요 관리점을 측정(→ 신뢰성↑)하며, 실시간 측정 중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린다. 또한 일정 시간마다 센서의 측정 결과와 관리자의 조치 결과를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저장한다. 이외에도 스마트 HACCP은 중요 관리점이 추가되더라도 센서만 추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HACCP을 도입한 A 업체는 최근에 관리자가 중요 관리점들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간격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 이전보다 신뢰성↑, 투명성↑)하였다. 한편 스마트 HACCP을 도입(→ A 업체보다 신뢰성↑)한 B 업체는 30분마다 측정 결과와 조치 결과를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저장하며, 최근에 모든 센서를 오차가 더 적은 센서로 교체(→ 이전보다 신뢰성↑)하였다.

• 스마트 HACCP

- 센서가 실시간으로 관리점 측정
 - 관리자가 일정 시간마다 측정하는 기존 HACCP보다 신뢰성↑ … ⑤
- 이상 상황을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
 - 발생한 이상 상황을 관리자가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HACCP보다 짧을 수 있음 … ④

• A 업체

- 측정 및 기록 간격을 30분으로 줄임
 - 측정 빈도가 높아져 신뢰성↑, 기록의 명확성도 높아져 투명성↑ … ①

• B 업체

- 오차가 적은 센서로 교체
 - 감독 과정의 오차가 줄었으므로 신뢰성↑ … ②

B 업체는 최근에 모든 센서를 오차가 더 적은 센서로 교체하였다.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줄었으므로 이전보다 신뢰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지문 내용과 〈보기〉의 유기적 연결

[오답 해설]

- ① A 업체는 최근에 측정 및 기록의 간격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이전보다 신뢰성과 투명성이 모두 높아졌을 것이다.
- ③ B 업체는 스마트 HACCP를 도입하였다. 스마트 HACCP는 중요 관리점이 추가되더라도 센서만 추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를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A 업체가 B 업체보다 관리자 충원 필요성이 적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A 업체는 관리자가 측정해야만 이상 상황을 알 수 있다. 반면 B 업체는 센서가 실시간 측정 중 이상 상황을 즉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따라서 이상 상황이 발생한 후 관리자가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A 업체가 B 업체보다 길거나 같을 것이다.
- ⑤ B 업체는 스마트 HACCP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므로,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일정 시간마다 측정하는 A 업체보다 신뢰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A 업체의 신뢰성이 B 업체보다 낮다는 선지의 진술은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성이 낮을 때 한계 기준을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는 인과 관계는 적절하지 않다. 신뢰성과 한계 기준의 관계가 제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계 기준을 폭넓게 설정하면 위해 요소에 대한 허용치가 넓어져 식품의 안전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7. 답 ①

[정답 해설]

③의 '새기다'는 '적거나 인쇄하다.'라는 의미이다. '주입하다'는 '흘러 들어가도록 부어 넣다.'라는 의미이다. 내부에 넣는다는 의미의 '주입하다'는 표면에 적는다는 의미의 '새기다'와 바꿔 쓸 수 없다.

[오답 해설]

- ② '일으키다'는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유발하다'는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둘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③ '뽑다'는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내다.'라는 의미이다. '선정하다'는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둘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④ '벗어나다'는 '규범이나 이치, 체계 따위에 어긋나다.'라는 의미이다. '일탈하다'는 '정하여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므로 둘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⑤ '적다'는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의미이다. '경미하다'는 '가볍고 아주 적어서 대수롭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둘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스피드 정답

18. ②

19. ①

20. ⑤

21. ①

18. 답 ②

[정답 해설]

[A]에서는 석운이 매화옥에서의 이십 년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그의 과거가 제시되며, '벼슬에 오른 지금 석운'과 같이 그의 현재와 대비되고 있다. 과거에 수하인과 가까웠던 석운은 오늘날 그를 '이질적인 존재요 또한 당금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인물'로 여기며,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수하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서술상 특징 파악

[오답 해설]

- ① [A]에서는 간접 인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하인에 대한 석운의 생각이 제시되고 있을 뿐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A]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석운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기에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독백적 진술을 통해 서술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대목에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 ④ [A]에서는 구체적인 공간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석운이 매화옥에서 생활하던 과거를 회상하며, 수하인과 가까이 지냈으나 지금은 그를 이질적인 인물로 느낀다고 서술한 부분은 인물의 처지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A]에서 석운은 환경이 주는 불만에서 수하인에게 접근했지만, 혼란과 울분 속에서도 그의 품에서 불평을 참아낼 수 있었기에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고 회상한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회상 장면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다. 다만 이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19. 답 ①

[정답 해설]

이 문항은 23학년도 9월 모의 「크리스마스 캐럴 5」 24학년도 6월 모의 「무성격자」 2번 문제의 출제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2.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③ ㉢는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평가원 기출과 함께 풀기

해당 기출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와 태도·반응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주제까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요구했다. 「크리스마스 캐럴 5」에서는 통행 제한과 관련된 규칙은 시민이 아닌 관청이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성격자」에서는 용팔의 행위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일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정답 선지가 되었다.

이 문항에서도 유사하게 석운의 내면 심리, 태도·반응뿐만 아니라 태도의 대상까지 판단하는 것을 요구한다.

'만들어 준 사람 눈치가 보일까'에서 ㉠을 만들어 준 사람은 오준이 아닌 수하인 강명진이다. 즉, 석운이 '잠자코 있었다'는 것은 오준의 말에 동의하며 ㉠을 대신할 새로운 도장을 내심 바라면서도, 자신을 위해 ㉠을 만들어 준 수하인의 눈치가 보일까 조용히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잠자코 있었다'는 석운의 반응이 오준에게 부담이 될 것을 의식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태도의 대상에서 OUT.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태도·반응 파악
& 세부 내용 일치

[오답 해설]

- ② 오준이 석운에게 수하인이 준 ㉠을 다시 갖고, 석운의 도장은 새로 하나만 들고자 제안하며 ㉠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석운은 섭섭함을 느끼면서도 오준과 요즘 친하게 지내던 터라 ㉠을 '도로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석운이 ㉠을 소유하는 것보다 오준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③ 도장방 주인은 오준에게서 '이상스러운 물건'인 ㉠을 받고 수하인에게 돌려주고자 했다. 또한 그가 수하인을 찾을 생각으로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았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도장방 주인은 ㉠을 내주고 새로운 도장을 파려는 오준과 달리 석운을 위해 ㉠을 만든 수하인의 정성을 헤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도장방 주인이 수하인에게 ㉠을 보여 주며 그것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 수하인은 그에게 술상을 청하며 ㉠이 전황석임을 밝힌다. 이에 도장방 주인은 '주기가 혹 위로 오르는 것 같았다'며 ㉠이 전황석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다.
- ⑤ 수하인은 전통이 담긴 ㉠을 석운에게 보냈지만, 그것이 도장방으로 온 상황에서 석운이 ㉠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추측한다. 반면 ㉠이 전황석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 도장방 주인에 대해서는 '제값을 불러줄 사람을 찾는 셈'이라며, 석운과 달리 ㉠의 진가를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한다.

20. 답 ⑤

[정답 해설]

㉔는 수하인이 석운에게 느끼는 반응으로, 그가 석운을 위해 도장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이 다시 도장방 주인의 손에 들어간 일에 대해 느낀 섭섭함을 나타낸다. 수하인이 직접 도장을 만들어 석운에게 주었고, 두 사람이 매화옥에서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하인이 석운을 소중히 여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㉔는 자신이 만들어 준 도장이 오준을 통해 도장방에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버릴 수 없는 친구에게 버림을 받은 듯싶어' 쓸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지만 석운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책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태도·반응 파악

[오답 해설]

- ① 오준은 수하인이 석운에게 준 도장을 보고 '결재 도장이야 좀 위엄이 있어야지'라며 그 도장은 다시 갈아 자신이 쓰고, 석운은 새 도장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타부터 석운의 결정도 없이 전황석 도장 한 방을 자기가 간직해' 버린 오준에게 석운은 ㉔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 ② 오준은 수하인이 석운에게 준 도장을 가지고 도장방으로 가서, 도장방 주인에게 그 도장을 맡기고 '계혈석 도장에 상아 도장 하나 더 끼워 만 환'으로 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대해 도장방 주인은 ㉔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이 부른 값보다 싸지만 수하인의 정성이 담긴 도장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수하인은 자신이 만든 도장을 석운에게 주었지만, 그 도장이 젊은 도장방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㉔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된 연고'냐고 당혹감을 드러낸다.
- ④ 젊은 도장방 주인은 수하인이 석운에게 준 도장이 자신에게까지 오게 된 경위를 수하인에게 전한다. 이를 들은 수하인은 술상을 청해 술을 마시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도장방 주인은 그런 수하인의 모습을 보고 그가 '마음의 동요를 누르려고 애쓰는 것' 같다고 느끼며, 자신의 말이 본의 아니게 그에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켰다고 생각해 ㉔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반출되는 유형: 지문과 <보기> '관련짓기'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황당인보기」

- 인장석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유구한 전통, 내재적 가치를 경시하고 이해득실,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식 → 가치 간의 위계질서가 공고화된 시대상을 조명
 - 부정적인 현실에 영합하여 세속의 성취만 지향, 실리 추구하는 인물 (석운, 오준)
- ↓
- 현실의 가치체계에 포섭 X, 청빈한 삶 영위, 내면의 품격 유지하는 인물 (수하인)
 - ⇒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암시

수하인이 몇 번 사양했음에도 도장방 주인이 '전황석을 알고 쓸 사람이 몇 사람 있겠'냐고 고집을 부리며 전황석 도장을 다시 수하인에게 넘기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된 유구한 전통과 내재적 가치를 경시하고 이해득실과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상을 수용하면서, 현실의 가치체계에 포섭되지 않고 내면의 품격을 유지하는 수하인에게 도장을 넘기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즉, 도장방 주인은 가치 간의 위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간의 위계질서가 공고화된 시대상을 수용하면서, 이러한 배금주의의 시대상 속에서도 청빈한 삶을 영위하며 내면의 품격을 유지하는 인물에게 유구한 전통과 내재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전하려는 것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보기>와 관련짓기 & 태도·반응 파악

[오답 해설]

- ② 도장방 주인이 '수정이나 상아 도장을 그냥 새겨 준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오준이 이를 '괜찮은 흥청'이라 여기며 수하인이 준 도장을 내주고 '위엄있어 보이는 계혈석 도장'을 파려는 모습은, <보기>를 참고하면 실리를 추구하며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의 태도로 볼 수 있다.
- ③ 석운이 자신은 '벼슬'에 올라 수하인이 살고 있는 '그런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배금주의가 팽배한 현실에 영합하여 세속적 성취와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의 태도로 볼 수 있다.
- ④ 과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격' 다른 품을 지녀 석운을 품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석운에게 도장을 선물한 일로 '천지가 변했'어도 '변한 것이 없'다고 평가받는 수하인은 <보기>를 참고하면 현실의 가치체계에 포섭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영위하며 내면의 품격을 지키는 인물로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수하인이 석운에게 만들어 준 도장이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 오준의 말에 석운이 '옳은 말씀'이라며 동의하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전통이 담긴 인장'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득실과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의 면모로 볼 수 있다. 반면 전황석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수하인은, 그러한 석운과 대비되는 인물로서 내면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 답 ①

[정답 해설]

이 문항은 26학년도 9월 모의 「두 출발」 4번 문제의 출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된 시기에, 엄격한 상하 관계에 기반한 신분 제도가 혼란해지는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모습이나,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면모를 보인다. 또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 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은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이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재현하며,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에서,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서 인해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 관계가 역전된 사회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겠다.

평가원 기출과 함께 보기

해당 기출에서는 <보기>에서 신분 제도가 '혼란'해지고 '흔들리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선지에서는 이러한 신분제의 상하 관계가 '역전'되었다고 하여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었다.

이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기>에서는 '가치 간의 위계질서가 공고화된'다고 하였는데, 선지에서는 '가치 간의 위계질서를 재편'한다고 하여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었다.

스피드 정답

22. ②

23. ②

24. ⑤

25. ⑤

26. ③

27. ④

22. 답 ②

[정답 해설]

(가)의 4연에서는 '오랑캐꽃'이라는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음에도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모양으로 인해 '오랑캐'로 불리며 서글픈 역사를 경험했던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나)에서는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와 같은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묵은 사랑'에서 벗어날 때 '푸른 새싹'과 같은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는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표현상 특징 파악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청자를 '너'라고 지칭하며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 울어 보렴'과 같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랑캐꽃'이라는 대상의 처지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연민의 정서를 강조하는 것일 뿐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③ (나)에서는 '붉은 파발'과 '푸른 새싹'에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고,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푸른 새싹'이 갖는 희망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므로 자연물인 대상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가)의 시적 대상은 자연물인 '오랑캐꽃'이며 이 꽃의 생김새를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색채어를 사용하여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나)에서는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묵은 사랑'을 떠나보내듯 낡은 것과 작별해야만 '푸른 새싹'과 같은 새로운 희망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이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의지로 파악할 때 (나)에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다. 한편 (다)에는 '눈은 눈을 통하여 ~ 없었던가', '그것은 단지 목적지에 감으로써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에서 의문의 형식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는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의 의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부각할 뿐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가)에서는 자연물인 '오랑캐꽃'을 '너'라고 칭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목 놓아 울'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의인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지만 '오랑캐꽃'으로 불리는 대상을 통해 '강 건너로 쫓겨 갔'던 사람들의 삶을 환기시키고 있으므로 유랑민들의 비극적인 현실에서 삶의 무상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는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라는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지만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삶의 무상감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서는 '창은 우리에게 광명을 가져오는 자이다'라는 표현에서 대상을 의인화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삶의 무상감과 거리가 멀다.

23. 답 ②

[정답 해설]

빈출되는 유형: 지문과 <보기> '관련짓기'

<보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에서 '오랑캐꽃': 오랑캐와 본질적으로 무관함에도 '오랑캐꽃'으로 불리며 핍박받는 억울한 존재
 - '오랑캐꽃'을 매개로 상기한 고려 군사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내몰린 여진족의 역사
 - = 일제에 의해 고국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 (동일시)
- 화자가 '오랑캐꽃'에 연민을 드러내며 공감 → 일제 강점기 시절에 살던 작가가 당시 우리 민족의 설움 위로

<보기>를 참고하면 '가랑잎처럼 굴러'간 '오랑캐'는 여진족을 일컫는 것으로, 일제에 의해 고국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과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의 머언 조상'은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핍박한 주체로, '머언 조상'이라는 점에서 작가가 살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고국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당시 우리 민족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고려 군사들이 오랑캐들을 내몰았다는 <보기>의 내용과 '머언 조상'들이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오랑캐들을 내몰았던 자들로 볼 수 있으나, 작가가 '가랑잎처럼 굴러'간 '오랑캐'와 동일시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시어 간 관계 파악

& <보기>와 관련짓기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오랑캐꽃은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음에도 오랑캐꽃이라고 불린다. 이는 <보기>를 참고하면, 오랑캐와 본질적으로 무관함에도 '오랑캐꽃'으로 불리며 멸시당하는 (가)의 중심 소재가 되는 자연물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③ 오랑캐는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도래샘'과 '띠집'을 모두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다. 이는 <보기>를 참고하면 고려 군사의 침략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내몰린 여진족의 역사적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보기>를 참고하면 고려 군사에 의해 타지로 내몰린 여진족의 상황은 일제에 의해 고국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과 동일시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 온 오랑캐의 상황은 일제에 의해 고국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처지와 결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⑤ <보기>를 참고하면 화자가 오랑캐꽃에 연민을 드러내며 공감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설움을 자기가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주며 오랑캐꽃에게 '목 놓아 울어'보라는 것은, 연민의 정서를 기반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설움을 위로하려는 작가의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24. 답 ⑤

[정답 해설]

3연에서 '조로의 물'은 '새벽에 준' 것이지만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 젖어 있'는 것이며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 젖어 있'는 '묵은 사랑'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1연에서 화자는 '묵은 사랑이 / 벗겨질 때', 곧 '잃는 것'이 있을 때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조로의 물'은 화자가 떨어져 내야 할 '잃는 것'에 대응하는 대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시어 간 관계 파악

[오답 해설]

- ① 1연에서 '묵은 사랑이 / 벗겨질 때'는 새롭게 돌아나는 '푸른 새싹'의 존재를 고려할 때 새로운 사랑에 대한 화자의 지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연의 '묵은 사랑이 / 움직일 때'도 1연의 '묵은 사랑이 / 벗겨질 때'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대응되고 있으므로 서로 대비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1연에서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묵은 사랑이 벗겨지는 것과 유사하여, 과거의 사랑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사랑이 점차 깊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3연에서 '대낮이 지나도록' 물이 마르지 않고 젖어 있는 상황은 '묵은 사랑이 /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 젖어' 있는 모습과 상응하며, 이는 묵은 사랑을 뉘우치면서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를 사랑이 점차 깊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2연에서 '너의 그림자'는 묵은 사랑이 움직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으로, '얻는다는 것'에 관한 깨달음, 즉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사랑을 잃어야 한다는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를 외면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화자의 미련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 ④ 2연에서 '석경'은 먼지가 앉았다는 점에서 오래된 물건을 마주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3연에서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 젖어 있'다는 것은 '묵은 사랑'을 저버린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미련을 간직한 채 여전히 '묵은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양가적인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 답 ⑤

[정답 해설]

㉔는 사람들이 창을 통해 보려는 충동이 단순한 '헛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밖을 보고 다른 대상과 이어지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다른 사람의 생활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㉔는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창을 통해 외부를 보려는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을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창을 통해 외부를 보려는 충동을 호기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정서·태도 파악

[오답 해설]

- ① (다)에서는 '사람의 눈이 창이고, 집은 그 창이 눈'이라고 하여 눈과 창이 지닌 '통로'로서의 유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㉔에서 '그 사람의 눈에 매력'을 느끼듯이 '집집의 창'에 '고혹'을 느낀다고 한 것은, 눈과 창이 유사성을 통해 서로 다른 대상을 이어 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㉔에서는 우리가 창을 통해 보는 것이 '하나의 헛된 연극'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창을 통해 '자연과 인생의 무진장한 풍일'과 '세계 자체'를 볼 수 있기 때문으로, 창을 통해 보이는 모습이 '연극'처럼 인위적으로 꾸며진 장면이 아니라 자연과 인생을 비롯한 세계의 참모습을 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는 '모든 물체는 그 어떠한 것으로 의하든지 반드시 다른 물체와 연결되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㉔에서는 '눈은 눈을 통하여, 창은 창에 의하여' '은 세상이 하나의 완전한 투명체임'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㉔는 모든 물체가 눈이나 창 같은 통로를 지니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세상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부각하는 진술로 볼 수 있다.
- ④ ㉔는 '기차', '전차', '자동차' 등으로 사람이 이동할 때 그것이 '단지 목적지에 감' 이외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목적지에 가는 것뿐 아니라 '생활에 직접적으로 통하고 있는 하나의 변화무쌍한 창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생각과 이어진다. 그러므로 ㉔는 인간이 이동하려는 목적의 이면에 세상을 보려는 근원적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부각하는 진술로 볼 수 있다.

26. 답 ③

[정답 해설]

전해지는 ㉠(까닭)에 따르면 '오랑캐꽃'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와 닮았기 때문에 '오랑캐꽃'이라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은 '오랑캐꽃'과 '오랑캐'의 외형적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실)은 '사람이란 자기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봄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생각을 드러내므로, 인간이 타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소재의 의미 파악

[오답 해설]

- ① ㉠(까닭)은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시적 대상을 '오랑캐꽃'이라 부르게 된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지기로는 그 까닭이 꽃의 모양이 '오랑캐의 뒷머리'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은 조상들이 행한 명령 행위의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그 의도에 대한 추측이나 비판적 시선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사실)은 '사람이란 자기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생활에 의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생활을 봄'으로써 살 수 있다는 인식이다. 즉, ㉡은 인간과 인간 삶에 대한 보편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이지, 인간의 삶에서 경계해야 할 그릇된 삶의 태도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 ④ ㉠(까닭)은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은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대상에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사연을 제시한 것이다. 조상들이 오랜 전란을 겪은 것은 맞지만, ㉠은 오랑캐와 오랑캐꽃의 외형적 유사성에 관한 것이므로 오랜 전란의 종식을 염원하는 것과는 연관 짓기 어렵다. 한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창 측의 좌석에 있게 하는 감정'에 관한 것으로, 창 측의 좌석을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통찰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까닭)은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시적 대상을 '오랑캐꽃'이라 부르게 된 이유를 나타내므로, 시적 대상이 오랑캐꽃으로 이름이 붙여진 유래에 관한 깨달음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사실)은 '사람이란 자기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생활'을 통해 삶을 이어 간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즉, 이는 개인 간의 서로 다른 성향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대한 깨달음을 내포한다.

27. 답 ④

[정답 해설]

빈출되는 유형: 지문과 <보기> '관련짓기'

<보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을 응시하는 행위 → 인간 내면의 욕망 발현

- (나): 파발을 응시하는 행위 →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화자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묵은 사랑'으로 표상되는 구시대의 산물을 모두 청산하는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
- (다): 창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응시하는 행위 → 인간 본연의 욕망
글쓰는 욕망을 실현하는 상황에서 나타내는 모순된 감정을 제시하면서, 욕망이 억압되는 상황도 함께 보여줌

(다)에서는 '우리가 창을 통하여 보려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또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어'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창을 한없이 그리워하며' 동시에 '창에 나타날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외부 세계를 응시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을 실현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순된 감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를 무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보려는 호기심에 반드시 복종하고 만다'고 말한 점으로 보아, 외부 세계를 응시하는 행위를 단념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욕망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수필에서의 심리 & 관계 파악 & <보기>와 관련짓기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묵은 사랑이 / 벗겨질 때', '묵은 사랑이 / 움직일 때', '묵은 사랑이 /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파발을 응시하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나)에서 '묵은 사랑이 /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다'는 것은 묵은 사랑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보기>를 참고하면 '묵은 사랑'으로 표상되는 구시대의 산물을 모두 청산하지 못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구시대의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 ③ (다)에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서로를 잊는 창 옆에 머물러 있으려' 하며, 사람의 보려는 욕망은 너무 크다고 인식하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창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응시하는 행위를 인간 본연의 욕망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얼는다는 것이' '곧 잃는 것'이라는 표현은 <보기>를 참고하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묵은 사랑'으로 표상되는 구시대의 산물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세태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감옥을 '암흑한 건물에 사람을 넣는 것'으로 본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창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응시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이 억압된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피드 정답

28. ③

29. ④

30. ②

31. ③

28. 답 ③

[정답 해설]

최 씨는 박 씨에게 편지의 내용을 물은 후,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일지가 지은 모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의 말만을 듣고 자신만을 책망할 수 있느냐며, 진사에게 의심받게 된 상황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세부 내용 일치

[오답 해설]

- ① 일지는 최 씨의 방에서 은지환 한 쌍을 훔친 후, 최 씨의 글씨를 본 뜬 편지 한 장에 은지환을 넣어 노구(방물장수)에게 내어 준다. 이때 은지환을 몰래 가져온 것은 일지이지, 차돌이 아니다. 주제 OUT.
- ② 노구는 일지의 부탁에 따라 편지를 찾는 일지를 저지하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편지를 일지에게 내어주고 달아나고 있을 뿐, 편지를 최 씨의 방에 몰래 남기고 있지는 않다.
- ④ 여종인 금연이 별당에 가 박 씨에게 진사가 최 씨를 질책한 사건을 전하고, 박 씨가 이에 놀라 큰방으로 건너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진사님께서 무슨 일인지 저 건넌방 애기씨(최 씨)를 대단히 꾸중하시더이다.'라는 금연의 발화와 '아버님께서 무슨 일로 저리 꾸중하시니까?'라는 박 씨의 발화를 고려하면, 진사가 최 씨를 질책한 연유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 ⑤ 일지는 차돌과 일을 꾸며 최 씨의 방 마루 밑에 앉아 있다가 달아날 것을 명령한다. 이후 진사는 일지의 부름으로 사랑에서 나와 낯선 자의 인적을 목격하고 있을 뿐, 최 씨의 방 근처에 일지와 함께 숨어서 지켜보고 있지는 않다.

29. 답 ④

[정답 해설]

일지는 방물장수를 불러 ㉠에 편지를 내어 주며 계락을 꾸미고, ㉡에 방물장수가 약속을 이행하며 최 씨가 곤경에 처한다. 이때 최 씨와 진사 사이 생긴 갈등은, ㉢에 다시 한번 일지가 음모를 꾸며 진사의 오해를 유도한 것을 통해 한층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사건의 순서 · 관계 & 부정적 상황(갈등) 파악

[오답 해설]

- ① ㉠은 일지가 최 씨의 방에서 은지환 한 쌍을 도적질하고, 최 씨의 필체를 모방한 편지를 써 그 안에 은지환을 봉한다는 점에서, 일지의 계획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일지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꾸미고 있을 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② ㉢에서 ㉣까지 일지의 계획대로 일지와 차돌, 노구의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도 차돌이 여전히 일지의 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협력 관계가 와해될 조짐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은 방물장수(노구)와 함께 일지가 계락을 꾸미는 시간이다. 일지의 계획에 노구가 응한다는 점에서 인물의 의도대로 계획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있다. 아울러 ㉢에서도 역시 일지가 의도한 대로 올바르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예기치 못하게 계획이 어긋나고 있지는 않다.
- ⑤ ㉤은 일지가 꾸민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에 해당하며, 이는 ㉢에서 진사가 최 씨를 오해하고 최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쓴 갈등 상황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인물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30. 답 ②

[정답 해설]

노구가 최 씨와 담화를 나눈 날 하루 전, 노구는 일지의 요구에 응하며 그의 계략에 가담하게 된다. 이때 '내 따라 나가 편지를 찾을 것이니 나를 저지하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내어주고 달아나라'는 일지의 요구를 고려하면, ㉔는 편지를 찾으려 하는 자신을 '저지하는 척'하는 노구에 대한 반응이다. 즉, 예상치 못한 상대의 반응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약속된 상대의 반응에 대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대화의 내용 & 사건의 인과 관계 파악

[오답 해설]

- ① ㉔는 전날 일지가 '노구'에게 건넸던 '편지 봉한 것'을 다시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다. 일지는 '노구'에게 '내 따라 나가 편지를 찾으면, '나를 저지하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내어주고 달아나라'라고 했다. 따라서 ㉔와 같이 '편지를 찾으려는 일지의 행동은 노구로 하여금 사전에 계획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지문을 읽어보면 실제로 노구가 일지와 실랑이를 하다가 달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㉔는 은지환을 외간 남자에게 넘겼다고 추궁하면서 '집안의 소중한 물건'을 부적절하게 처분한 '최 씨'의 행실에 실망하고 있는 '진사'의 반응이다. 이러한 진사와 최 씨의 갈등에 진사의 아내인 '장 부인'은 괴이 여기며 궁금증을 드러낸다.
- ④ ㉔는 사건의 연유를 묻는 박 씨에게 최 씨로 인해 언짢은 심경을 '진사'가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사'가 '최 씨'를 꾸중한 일이 편지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난다.
- ⑤ '최 씨'가 외간 남자와 어울리고 집안의 소중한 물건까지 넘기려 했다고 오해한 진사는, 이튿날 밤 최 씨의 방 마루에서 달아나는 낯선 인적을 목격하고는 ㉔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이는 '진사'가 '편지에 외간 남자가 내일 밤에 온다'고 한 내용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진사'가 '최 씨'의 죄를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1. 답 ③

[정답 해설]

빈출되는 유형: 지문과 <보기> '관련짓기'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진사전」: 처첩 간의 갈등

- 첩(일지): 가정 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본처(최 씨)에게 정조 훼손의 누명을 씌움
누명을 씌운 본처를 음해하는 추가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도 함
- 가부장(진사): 본처와 달리 첩의 음모를 간파 ×
처첩 문제에 대해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무능함
또 다른 본처(박 씨): 가부장의 무능함을 인지함

최 씨와 진사의 갈등의 연유를 알아내고자 한 박 씨는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어떻다 할 수 없어 하릴없이 편지를 내어놓고 나오게 된다. 박 씨는 최 씨가 그러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편 '정형만으로는 명명백백하니' 달리 수가 없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뿐, 첩(일지)이 꾸민 음모의 실체를 간파하지 못한 가부장(진사)의 무능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제야 박 씨도 최 씨의 결백함을 시아버지가 알아주지 않음에 통탄'하는 장면이 가부장의 무능함을 인지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태도 · 반응 파악 & <보기>와 관련짓기

[오답 해설]

- ① 진사는 최 씨가 집안의 소중한 물건을 천금같이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은지환을 외간 남자에게 넘겼다'며 최 씨를 추궁한다. 이는 본처인 최 씨에게 정조 훼손의 누명을 씌우려는 첩 일지의 계략대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진사가 상황을 괴이 여기는 장 부인의 질문에 '대답치 아니하'고 그저 '며느리가 집안을 망쳤다'며 한탄한다. 이는 일지의 계략으로 최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을 간파하지 못하고, 처첩 문제를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부장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최 씨가 '그것(편지의 내용)'에 대해 '첩 일지가 지은 모해'라며 억울해하는 것은, 본처인 최 씨가 첩인 일지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신이 곤경에 처하였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차들은 일지의 명령대로 진사가 나타나자 '최 씨의 방 마루에서 나와 담을 넘'는다. 이는 최 씨가 외간 남자와 어울린다고 음해하는 추가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일지가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피드 정답

32. ④

33. ①

34. ⑤

32. 답 ④

[정답 해설]

(가)에서는 '이 한 몸 잊었어라', '이내 시름 어이할꼬'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각각 변방으로 부임하는 삶에 대한 의지, '평생 먹은 뜻'(북방이 아닌 조정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재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아이야 ~ 아니 놀고 어찌하리', '우리도 그치지 말아 산수같이 하오리라'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각각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 자연과 같은 속성(변치 않음)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표현상 특징 파악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에서 모두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② (가)와 (나)에서 화자의 여러 행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대상의 영속성에 대한 경외감과는 거리가 멀다.
- ③ (가)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는 자연 속에서 살며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가)에서는 '평생 먹은 뜻'을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드러낸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드러나지 않는다.

33. 답 ①

[정답 해설]

[A]에서 화자가 험난한 '세상살이'와 비교하여 '북방의 철령'을 '평지'로 여기는 것은, 세상살이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즉 화자는 현실을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화자는 북방으로 부임된 자신의 처지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정서·태도 파악

[오답 해설]

- ② [A]에서 화자는 '회양 옛 사실'을 언급하여 역사적 인물인 급장유가 회양에서 선정을 베푼 일과 회양(북방)으로 부임한 자신을 연관지어, '치병 목민'을 위해 '변방 부임'을 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홍인문'을 내달아 '녹양'에서 말을 갈아타는 행적을 제시하며 '장안'을 떠나 '국경'으로 향하는 여정을 보여준다. 이때 '장안'은 임금이 있는 공간이자 화자가 머물던 공간이며, 만 리 밖 '국경'은 화자의 부임지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뜻밖'에 하게 된 일(북방에서의 치병과 목민)을 수행하기 위해 '임금'께 절을 올리고 '이 한 몸 다 잊었'다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려는 각오를 드러낸다. 이때 '임금이 계신 옥경이 가려졌'다는 표현을 통해 임금은 '옥경'에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화자는 '서생'의 일은 한묵이라고 생각했지만, '늬은이(화자 자신)'가 하게 된 일은 변방 부임이며, 이에 대해 '진실로 뜻밖'이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34. 답 ⑤

[정답 해설]

이 문항은 22학년도 9월 모의 「종가」, 「노래와 이야기」의 4번 문제의 출제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사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평가원 기출과 함께 풀기

해당 기출에서 선지의 앞부분인 '상처가 노래에 쉬이 덧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된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내용과 관련된다. 반면, 선지의 뒷부분인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준다'는 것은 <보기>에서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한다'는 정서적 태도와 연결된다. 즉, 서로 다른 두 범주를 인과 관계로 엮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었다. 이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자신의 부임지를 유교적 이념을 실현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점과 '변방으로 부임한 좌절감을 해소하려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내용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부임지를 이념 실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좌절감을 해소하려는 정서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므로 이를 인과 관계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빈출되는 유형: 지문과 <보기> '관련짓기'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 (나): 공간에 대한 인식 → 자신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냄
 - (가): 1) 임금의 명에 따라 지방관으로 임명된 자신의 부임지를 유교적 이념을 실현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
 - 2) 중앙 정계에서 소외된 곳으로 여기며 탄식
 - (나): 1) 자연물과의 친밀감 표현
 - 2) 자연의 올바른 이치에 따라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삶의 흥취를 드러냄
- (가)의 화자는 변방으로 부임한 좌절감을 해소하려 함 ↔ (나)는 자연 속에서 은일하는 만족감을 향유하려 함

(가)에서 화자가 '초택 청빈'을 떠올리며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을 잊'고자 하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변방으로 부임한 데서 느낀 좌절감을 해소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 화자가 자신의 부임지를 유교적 이념을 실현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치병(治兵) 목민(牧民)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라는 구절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좌절감을 해소하려는 정서적 반응과는 서로 다른 범주의 내용이다. 즉, 화자는 술을 마시는 것과, 속세를 멀리하는 것을 통해 좌절감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며,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여 좌절감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답 선택을 위한 습관] 정서·태도 파악
& <보기>와 관련짓기

[오답 해설]

- ① (가)의 화자가 '북방 이십여 주'의 '치병 목민'을 맡은 것을 두고 '망은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다고 한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임금의 명을 받은 지방관으로서 부임지를 유교적 이념을 실현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며, 그곳에서 자신의 소임을 성실히 다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가 '대궐을 홀로 떠나'니 '적객'은 무슨 죄냐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소회를 드러내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자신의 부임지를 중앙 정계에서 소외된 곳으로 여기며 탄식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의 화자가 '우리도 그치지 말아 산수같이 하'겠다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자연의 올바른 이치에 따라 심신을 수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가)의 화자가 '평생 먹은 뜻'을 떠올리며 '시운'과 '운명'을 탓하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변방으로 부임한 좌절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화자가 '무심한 백구'들을 '벗'으로 여기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자연물과의 친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E
MO**

개념어

물리주의, 유형 동일설, 스마트, 내적 감각, 토큰 동일설, 데이비드슨, 기능주의, 다중 실현 가능성, 퍼트넘, 포더, 심리 용어, 소거적 유물론, 파이어아벤트, 주관적 경험

● 마음이란 뭘까?

마음이란 게 대체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게 정말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작용일 뿐인지, 아니면 뭔가 더 신비로운 게 있는 건지 말아야. 여기서는 **물리주의**라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 물리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마음은 결국 뇌와 몸의 물리적 작용으로 설명된다”라는 주장이야. 그런데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서,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 물리주의에는 대표적으로 유형 동일설, 토큰 동일설, 기능주의, 소거적 유물론 등이 있어. 이 이론들이 왜 나왔고, 또 뭘 주장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먼저 머릿속에 뇌를 한번 떠올려볼래? 이 뇌에서 어떤 부분이 불이 켜지듯 활성화되면, 그 순간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거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라고 해보자. 이런 그림은 물리주의자들의 기본 아이디어와 맞닿아 있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리적 현상(고통·감정·의식 등)은 사실 뇌에 있는 특정 신경 세포나 화학 작용이 일으키는 물리적 사건의 결과물이야”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물리적 사건과 마음(심적 사건)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형 동일설과 토큰 동일설이야.



● 유형 동일설: 마음과 뇌는 1대1로 대응된다?

먼저 **유형 동일설**을 볼까? 이 이론의 핵심은 “특정 유형의 마음 상태가 특정 유형의 뇌 상태와 1대1로 대응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고통이란 마음 상태는 뇌에서 C-섬유가 발화하는 물리적 상태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 ‘유형(typ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고통이라는 일반적인 범주의 마음 상태=C-섬유 발화라는 일반적인 범주의 뇌 상태’처럼 유형(분류 단위) 자체가 일치한다고 보는 거야. 여기서 ‘C-섬유’는 실제 신경계에서 특정 통증 정보를 전달하는 섬유를 가리키지.

유형 동일설을 주장한 **스마트**는 “결국 인간은 물리 입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의식이나 감각은 특별하고 독립적인 게 아니라 뇌 안의 물리적 작용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라고까지 말해. 하지만 이에 대해 “내관, 즉 내면을 들여다보는 주관적 경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반론이 나와. 우리가 빨간 장미를 보고 느끼는 ‘예쁘다, 빨강다’ 같은 내적 감각은 오로지 나만 느낄 수 있는 주관적 체험인데, 정말 뇌 상태 하나로 딱 잘라서 정의할 수 있는지 의심이 생기는 거야. 스마트는 의식을 표현하려면 물리적 대상이나 현상에 건줘서 설명해야 하고, 실제로 독립된 **‘내적 감각’**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도 실은 물리적인 실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 요약하자면, ‘빨강다’라고 말하는 것은 뇌에서 일어난 특정 반응을 물리적 대상으로 바꿔 말하는 것일 뿐이기에, 다른 신비로운 내면 세계는 없다는 거야.

● 토큰 동일설: 꼭 똑같은 뇌 패턴이 나와야 할까?

그런데 유형 동일설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있어. “꼭 모든 사람의 고통 상태가 똑같은 뇌 패턴으로 나타나야 할까?”라는 의문이야. 이들은 “두 사람이 모두 머리가 아프다고 말해도, 실제 뇌 속 물리 과정이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라며 문제를 제기하지. 이때 등장하는 것이 ‘토큰 동일설’이야. 여기서 ‘토큰(token)’은 개별 사건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야. 이들은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의 유형이 아니라, 이 사람의 뇌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물리 사건과 그 사람의 고통이 동일하다고 봐. 즉, A라는 사람의 머리가 아플 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과 B라는 사람의 머리가 아플 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개개인의 구체적인 뇌 상태와 개개인의 구체적인 마음 상태가 동일하다”라는 주장이지. 데이비드슨이라는 철학자는 이를 더 발전시켜서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부수성)’ 것이므로 심적 사건은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으며,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심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다만 이 경우, 마음이 물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서 “마음이란 결국 물리적 사건의 부산물”이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해져.

● 기능주의: 마음은 기능만 하면 된다?

앞서 살펴본 두 이론은 ‘마음 = 뇌 상태’라는 식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었는데, “굳이 뇌 상태 자체와 마음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묻는 이론이 등장했어. 바로 기능주의(functionalism)야. 기능주의는 마음 상태는 결국 어떠한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뇌에서 발화하는 신경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입력을 받아서 어떤 출력을 내놓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 우리가 꼭 윈도우 운영체제 CPU를 써야만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맥이나 리눅스 CPU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프로그램(기능)은 다양한 물리적 하드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다중 실현 가능성’이라고 불러. 퍼트넘이 제시한 예시를 살펴보자. “인간과 똑같이 느끼고 행동하는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의 몸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도, 그에게도 분명 ‘고통’ 같은 마음 상태가 있을 것이다.” 사람 뇌에서 고통이 C-섬유의 발화로 나타난다면, 외계인의 뇌(혹은 몸)에서는 Q-섬유 발화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둘 다 ‘고통’이라는 기능을 실현한다는 점이야. 이 생각을 발전시킨 포더라는 학자는 마음을 ‘정보를 처리하는 모듈들의 집합’으로 봤어. 시각을 담당하는 모듈, 언어를 담당하는 모듈, 기억을 담당하는 모듈 등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보고는 거지. 각 모듈이 다 다른 물리적 구조에서도 그 기능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게 곧 마음의 작동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돼.

● 소거적 유물론: 심리 용어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여기까지 들으면, “아 그럼 기능만 제대로 파악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고통’, ‘즐거움’ 같은 심리 용어도 그대로 써도 괜찮겠네”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또 다른 강경한 주장이 있어. 그런 심리 용어들 자체가 부정확하고, 오히려 과거 미신이나 전설에서 쓰던 용어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소거적 유물론(eliminative materialism)이야. 파이어아벤트는 “지금 우리가 ‘나 너무 괴로워’라고 말하는 건 정확한 표현일까?”라고 물어. ‘괴롭다’ 같은 표현을 물리주의적 언어, 예를 들어 ‘뇌 속에서 A라는 신경회로가 화학적으로 과활성화된 상태’로 번역하려면 필연적으로 해석 과정이 들어가고, 해석하는 순간 이미 원래 뜻이 왜곡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차라리 ‘괴롭다’ 같은 애매한 심리 용어를 통째로 없애고, 정확한 신경 과학 용어로 대체하자고 주장하지. 실제로 과거에는 “고통은 악마가 들어온 증거야” 같은 식으로 설명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설명이 거의 사라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어땀고 신경세포가 어땀고” 하는 과학적 설명으로 바뀌었잖아.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심리 용어가 신경 과학적, 물리주의적

용어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게 소거적 유물론의 입장이다. ‘빨갭게 보인다’라는 것도 결국 ‘특정 파장의 빛이 망막과 시신경을 이렇게 저렇게 자극해서 일어난 어떤 전기·화학적 반응 상태’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거지.

이론	핵심 주장	주요 한계
유형 동일설	심적 사건의 ‘유형’과 뇌 속 물리 사건의 ‘유형’이 동일	주관적 경험 환원 가능 여부, 뇌 구조 다양성 반영 문제
토큰 동일설	개별 심적 사건과 해당 순간 뇌 속 물리 사건 동일	유형 동일설보다 유연하지만, 주관적 경험 설명 한계
기능주의	마음은 기능(입력-출력)의 체계로 정의 (다중 실현 가능성)	기능만으로 의식·감각을 온전히 설명 가능한가?
소거적 유물론	모호한 심리 용어 폐기, 정확한 신경 과학 언어로 대체	주관적 경험을 전부 뇌 과학 용어로 치환할 수 있는지 논란

● 마음은 뇌일까, 기능일까, 아니면 사라질까?

이렇게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면 결국 ‘마음이 뇌에 완전히 종속된 존재인지, 마음이 물리적 사건과 동일한지 혹은 기능의 문제인지, 심리 용어가 사라져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쟁점들이 얹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심리 철학에서는 여전히 “**주관적 경험(Qualia)**이라는 게 정말 물리적 설명만으로 다 해결될까?” 하는 의문이나, “인공 지능이 정말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 남아 있어. 이런 복잡한 쟁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이론을 내세워 경쟁하고, 실험심리학·인지 과학·신경 과학 같은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통찰을 시도하는 중이야.

●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정리하자면, 물리주의적 관점에서 마음은 뇌와 몸의 물리적 작용으로 설명된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지만, 뇌 상태와 마음을 1대1로 대응시키는 유형 동일설과 개별 사건에만 적용하는 토큰 동일설, 뇌 구조 대신 기능에 집중하는 기능주의, 아예 심리 용어 자체를 폐기하자는 소거적 유물론 등으로 갈라진다는 거야. 유형 동일설은 ‘고통 = 특정 신경섬유 발화’ 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데서 뇌의 구조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기능주의는 다중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주관적 감각을 온전히 설명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어. 소거적 유물론은 ‘고통’ 같은 용어를 신경 과학적 표현으로 바꾸자고 하지만, 과연 주관적 경험을 전부 물리적 언어로 대체해도 되는지 논란이 남아. 결국, 마음을 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양하지만, 각 이론마다 서로 다른 강점과 한계를 지닌다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지.

○× 퀴즈

1. 유형 동일설은 심적 사건이 특정한 뇌 상태와 반드시 1대1로 대응된다고 본다. (○ / ×)

답 ○

[해설] 유형 동일설에서는 특정한 심적 상태(☹️ 고통)가 특정한 뇌 상태(☹️ C-섬유 발화)와 반드시 1대1로 대응한다고 본다. 즉, 동일한 심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같은 뇌의 물리적 상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2. 기능주의는 특정한 심적 사건이 반드시 하나의 고정된 물리적 상태에서만 발생한다고 본다. (○ / ×)

답 ×

[해설] 기능주의에서는 심적 사건이 특정한 물리적 상태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다중 실현 가능성).

3. 소거적 유물론은 더욱 정교한 신경 과학적 개념으로 심리 용어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므로, 기존의 심리 용어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 ×)

답 ×

[해설] 소거적 유물론은 기존의 심리 용어 자체가 부정확하며, 궁극적으로는 신경 과학적 개념으로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고통'이나 '즐거움' 같은 용어도 신경 과학적으로 보다 정밀한 표현으로 변화하면서 사라질 것이라 본다.

● 더 읽을거리

※ 인공지능, 정말 의식을 갖게 될까?

인공지능이 언젠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로 동작해. 그런데 단순한 기계 명령을 넘어,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먼저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을 고민할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논의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의 구분이야. 약한 인공지능은 바둑을 두거나 음성 명령을 알아듣는 등 특정한 작업을 잘 처리하는 정도의 인공지능을 말해.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의식과 감정을 갖고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하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음성 비서나 추천 알고리즘 등)은 약한 인공지능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거나, 사람처럼 사랑과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는 건 어려울 거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인공지능은 결국 프로그래밍된 명령어와 계산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감정이나 의식을 생성할 수 없다고 보는 거지. 반면 어떤 사람들은 뇌 역시 전기 신호와 화학물질의 복잡한 계산에 의해 작동하므로,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여 이러한 계산을 재현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도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반박해.

이러한 논의가 심리 철학과 연결되는 지점은 마음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같아. 만약 기능주의 이론처럼, 특정 기능(예를 들면 고통을 느끼거나 의도를 가지는 기능)을 수행하면 그것이 마음이라는 주장이라면, 로봇이나 컴퓨터가 그 기능을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의식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관적 느낌이나 웰리아(내가 빨간색을 볼 때 느끼는 고유한 감각) 같은 건 기계가 가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해.

우리가 이러한 논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 수준의 의식을 가진다면 인공지능을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야. 과거에는 로봇이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지만,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대화형 인공지능이 우리와 대화하며 판단까지 해 준다면, 그 로봇이나 AI를 단순 도구로 볼 수 있느냐는 거지. 한 발 더 나아가서 의식이 있다면 권리와 책임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결국 인공지능이 정말 의식을 가질지, 아니면 그저 똑똑한 프로그램에 머무르는지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하기 어려워. 다만 컴퓨터 과학과 뇌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이 문제가 더욱 뜨겁게 논의될 거라는 점은 분명해. 물론 지금은 게임 속 인공지능 캐릭터나 음성 비서가 우리를 따라 말하는 정도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궁금해지지 않아?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과 전혀 다른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야 할지도 몰라.

개념어

급부, 급부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 담보 책임, 반대급부, 유상 계약의 등가성 원칙

● 채권과 채무

채권은 일상적으로 빚을 받을 권리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훨씬 폭넓은 개념이야.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채권 범주에 들어가거든.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야 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 (**채권 개념은 수특 162p에서도 등장하니, 함께 학습하면 좋을 거야.**) 둘 다 서로를 상대로 이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각각 채권을 가진 셈이지. 여기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권자고, 그 상대방이 채무자야.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를 흔히 **급부**라고 부르는데, 급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하면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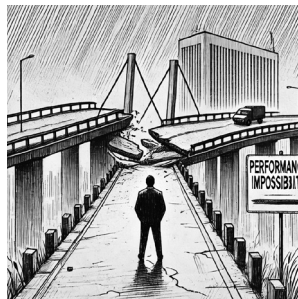
● 계약 외에도 발생하는 채권: 불법행위와 손해 배상

가장 일반적인 채권 발생 원인은 **계약 체결**이야. 예를 들어 A와 B가 A는 물건을 주고, B는 돈을 준다는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여기서 채권(A: 돈을 받을 권리 · B: 물건을 받을 권리)과 채무(B: 돈을 줄 의무 · A: 물건을 넘길 의무)가 동시에 생겨. 그런데 가끔은 두 사람이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도 법에서 강제로 채권 · 채무 관계를 만들어 내기도 해. 대표적인 예가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등)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야. 누군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돈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게 돼.

여기서 **고의**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의사를 뜻하고, **과실**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 예를 들어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를 낸 경우, 과실 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 반대로 무단횡단을 하며 뛰어드는 보행자를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

● 급부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채무자는 보통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행함으로써(이를 급부 실현이라고 해) 채권을 소멸시켜.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유로 아예 급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급부 불능**이라고 해. 그리고 이 급부 불능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원시적 불능**(계약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했던 경우)과 **후발적 불능**(계약 이후에 비로소 불가능해진 경우)으로 나뉘.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애초부터 실현할 수 없었으니까,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이후에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채무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어.



예를 들어 도시 계획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약속했으니 원시적 불능이었던 거지. 반면 건물을 짓기로 계약을 맺은 뒤에 시공사가 갑자기 자금 사정이 악화하여 공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면, 이건 후발적 불능이야. 계약 당시에는 급부 실현이 가능했지만,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 이행할 수 없어졌으니까.

● 채무자의 책임: 과실 책임주의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은 무효지만, 채무자가 그 불능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계약을 맺었다면 채권자는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여기서 알 수 있었다는 건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의미야. 다만 채권자도 처음부터 그 일을 실현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져.

후발적 불능에서는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급부 대신 채무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이때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 배상 책임이 생겨. 예컨대 갑자기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공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거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과실 책임주의라고 해. 개인이 고의·과실도 없이 무제한으로 책임을 질 수 없도록 민법 체계가 보호해 주려는 목적이기도 해.

● 무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 예외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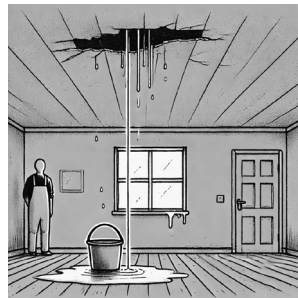
그렇지만 법에서는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을 두기도 해.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같은 특별법에 따르면, 운행자가 일정한 예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기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처럼 무과실 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중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형태가 담보 책임이야. 매대나 도급 같은 유상 계약(급부를 주고받는 대가 관계가 있는 계약)에서 계약 내용대로 물건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지.

도급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담보 책임: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담보 책임은 쉽게 말해, 물건이나 건물을 팔거나 넘길 때 약속했던 상태와 실제 제공된 상태가 달랐을 때 발생하는 책임을 뜻해. 민법상 매도인이 하자를 담보할 책임(민법 제580조 등)이 대표적이야. 예컨대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생기거나, 계약에 적힌 분양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훨씬 작다면, 분양자(채무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돼. 이런 유상 계약에서는 유상 계약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 아파트와 분양 대금)가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 해서, 하자가 있거나 면적이 부족해서 균형이 깨졌다면 분양자(채무자)가 억울해도 책임을 져야 해.



물론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채권자가 곧바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부족하거나 하자인 부분만큼 보상해 주면 되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사무실을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95제곱미터만 제공됐다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6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면, 사실상 본래 기대했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겠지. 이 정도면 전액 환불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완전히 무효로 할 수도 있어.

담보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약속된 가치와 실제 제공된 가치의 차액이야.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예를 들어 시공 과실로 결로가 생겼고, 그로 인해 거주자의 물건이 훼손됐다면), 훼손된 물건값에 대한 손해 배상은 별도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어. 담보 책임 자체는 어디까지나 물건의 상태가 계약과 달라서 발생한 가치 차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니까.

●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비교

구분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담보 책임 등)
책임 발생 요건	채무자의 고의 · 과실	고의 · 과실과 무관
주요 적용 범위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750조, 제390조 등)	유상 계약의 하자 담보 책임 (민법 제580조 등), 특별법상 책임
면책 · 감경 가능성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 면제	하자가 경미하거나 예외 사유가 있으면 책임 제한
배상 범위	예측 가능한 모든 손해	하자 · 수량 부족분에 대한 가액 차이 배상, 심각 시 계약 해제 가능
대표 사례	운전 과실 사고, 시공 불이행 등	분양 면적 부족, 물건 · 건물의 중대한 하자 등

이처럼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특히 담보 책임)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돼.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면 채무자가 자기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기 어려운 대신, 책임 범위는 보통 하자나 부족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돼. 반면 과실 책임이 적용되면 채무자가 잘못 없음을 증명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일단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 배상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어.

실무적으로도 이런 구분은 판례에서 자주 문제 돼. 예를 들어 건물 하자가 시공사의 부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계약에서 보장된 품질과 전혀 다른 수준인지에 따라 책임이 아예 달라질 수 있거든. 한국 민법 체계와 판례는 채무자의 과실 여부,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성(유상 계약의 등가성 원칙)이라는 두 축을 중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고 있어.

●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정리하자면, 채권과 채무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기대한 급부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해. 계약 성립 시점부터 급부 이행이 불가능했을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행할 수 없어진 데 채무자의 고의 · 과실이 있다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 그리고 담보 책임처럼 고의 ·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일도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그 성격을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해. 결국, 채권 관계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균형 잡힌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지.

○× 퀴즈

1. 채권은 계약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 / ×)

답 ×

[해설] 채권은 계약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등)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도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한다.

2. 급부가 원시적 불능 상태인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은 없다. (○ / ×)

답 ×

[해설] 원시적 불능 상태에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만, 채무자가 그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담보 책임은 계약한 물건이 약속된 상태와 다를 경우 적용되며, 채무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이 인정된다. (○ / ×)

답 ○

[해설] 담보 책임은 계약에서 보장된 상태와 실제 제공된 상태가 다를 경우 발생하며, 채무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무과실 책임의 한 형태이다.

● 더 읽을거리

※ 부당이득 제도

채권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서 서로 간에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 실제로 받은 이익이나 비용은 그대로 남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기로 계약했는데, 사실 애초부터 그 건물이 지어질 수 없는(원시적 불능) 상태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정되었다고 해 보자. 그러면 이미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이 무효라면 서로 아무 의무도 없는 게 원칙이지만, 한쪽이 그 계약금을 챙기고 다른 쪽이 손해를 본 상태가 그냥 유지된다면 너무 불공정하겠지.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두었는데, 이것 **부당이득 제도**라고 불러.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보통 세 가지 조건을 봐. 첫째, 누군가가 이익을 얻었는가. 둘째, 그 이익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인가. 셋째, 그 이익에 정당한 법률적 근거(계약이나 법규정 등)가 없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들어맞으면 이익을 돌려주라는 결론이 나와.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한쪽이 그 계약 덕분에 부동산을 공짜로 쓰면서 이득을 챙겼다면, 그 사용 기간만큼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식이야. 계약이 무효라도 실제로는 건물을 꽤 오래 썼으니, 그만큼의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야.

이 제도는 채권·채무 관계가 깨졌어도 한쪽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걸 막아 줘. 동시에, 잘못이 없는데도 받은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그러면 과실 책임주의와 충돌되는 건 아닐까 궁금할 텐데, 둘의 목적이 달라. 과실 책임주의는 잘못이 있는 사람만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고, 부당이득은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뒤 남을 수 있는 재산 불공평을 없애자는 거니까,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인 거지. 쉽게 말해, 과실 책임주의는 내 잘못 없이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말자는 거고, 부당이득 제도는 '계약이 깨진 뒤에라도 재산상 부당한 이익은 그대로 두지 말자'라는 거라서, 둘이 함께 작동해 균형을 맞춘다고 보면 돼.

개념어

식품 첨가물, 용량 반응 곡선, 일일 섭취 허용량(ADI), 최대 무독성량, 안전 계수, 응고제, 산화 방지제, 향료, 향미 증진제, 착색료

● 식품 첨가물이란 무엇인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면 뭔가 인공적이고 몸에 안 좋은 화학물질만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만들거나 가공하고, 조리하거나 보관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넣는 물질을 통틀어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이나 음식에 넣는 소금도 맛을 좋게 하려고 넣은 거라면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완성된 음식에 그 물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식품 첨가물로 본다는 거야. 심지어 식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을 소독하는 데 쓰는 물질이 간접적으로 식품에 묻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도 식품 첨가물로 분류돼. 생각보다 식품 첨가물의 범위가 넓지?

식품 첨가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보존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 식품 첨가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식품 첨가물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자연에서 얻는 방법이야. 자연에 있는 재료에서 필요한 성분만 뽑아내서 정제하거나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레몬에서 구연산을 추출하는 식이야.

두 번째는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드는 방법이야.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화학적으로 합성했다고 해서 다 자연에 없는 물질인 건 아니라는 거야. 자연에도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자연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천연=좋다, 합성=나쁘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정확하지 않은 셈이지.

● 식품 첨가물은 왜 사용하는 걸까?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

① 식품 제조를 위해 꼭 필요해서

어떤 식품들은 특정 첨가물 없이는 아예 만들어질 수가 없어. 껌을 예로 들어 볼까? 껌을 씹을 때 그 쫄깃한 질감을 내려면 ‘껌 기초제’라는 첨가물이 반드시 필요해. 이게 없으면 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지. 두부도 마찬가지야. 콩물을 갈아서 그냥 놔두면 두부가 안 되거든. ‘**응고제**’라는 첨가물을 넣어야 콩물이 단단한 덩어리로 뭉쳐져서 우리가 아는 두부가 되는 거야.

②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상하기 마련이야.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산화되면서 독성 물질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산화 방지제**’라는 첨가물을 넣어서 식품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보존성을 높이는 거지.

③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솔직히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목적이 아닐까 싶어. 향료나 향미 증진제를 넣어서 음식 냄새와 맛을 좋게 만들거나, 착색료를 넣어서 색깔을 예쁘게 만들어 먹는 즐거움을 더해 주는 거야. 시각적으로도, 미각적으로도 만족도를 높이는 셈이지.

④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식품을 가공하다 보면 원래 있던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우유를 가공해서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 때 칼슘이 일부 손실되는데, 이때 칼슘을 인위적으로 다시 첨가해서 영양을 보충하는 거야.

여기서 알아둘 점은, 하나의 식품 첨가물이 여러 목적으로 동시에 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첨가물은 맛도 좋게 하면서 동시에 보존 기간도 늘려 줄 수 있어.

● 식품 첨가물은 안전한 걸까? – 용량 반응 곡선

‘식품 첨가물은 몸에 나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이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섭취량에 따라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거든.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위험하고, 소금도 적당히 먹으면 필수 영양소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이야.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야. 적당히 먹으면 아무 문제없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은 특정 물질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는 얼마나 유해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용량 반응 곡선이라는 걸 사용해.

쉽게 말하면, ‘이 물질을 얼마나 먹었더니 실험 동물 중 몇 퍼센트가 이상 반응을 보였다’를 그래프로 그린 거야.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양까지는 안전하고, 어느 정도부터 위험한지 알 수 있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사람들이 먹는 식품의 양은 식품 종류마다 다르잖아? 밥은 한 끼에 한 공기 먹지만, 간식으로 먹는 과자는 조금만 먹잖아. 그래서 용량 반응 곡선만으로는 각 식품에 첨가물을 얼마나 넣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그래서 법으로 식품 종류별로 넣을 수 있는 첨가물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 거야.

● 일일 섭취 허용량(ADI)이란?

사람마다 체중도 다르고 먹는 양도 다르잖아? 그래서 ‘이 첨가물은 하루에 얼마까지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기준이 필요해. 그게 바로 일일 섭취 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이야. 일일 섭취 허용량은 특정 식품 첨가물을 평생 매일 먹어도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양을 뜻해. 단, 사람마다 체중이 다르니까 체중 1kg당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계산해.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일일 섭취 허용량에 60을 곱한 만큼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이지.

용량 반응 곡선

특정 물질을 섭취하거나 투여했을 때 유해 반응이 나타난 실험 대상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일일 섭취 허용량(ADI)

인간이 평생 매일 먹어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 가능한 용량

● 일일 섭취 허용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일 섭취 허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

1단계: 최대 무독성량 찾기

먼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물질을 얼마까지 먹여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양을 찾아. 이걸 **최대 무독성량**이라고 해. 예를 들어 실험 쥐에게 어떤 첨가물을 체중 1kg당 10mg씩 먹였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최대 무독성량은 10mg/kg이 되는 거지.

2단계: 안전 계수로 나누기

그런데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해. 왜냐하면 쥐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사람들끼리도 체질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안전하게 여유를 두기 위해 **안전 계수** 100으로 나뉘.

일일 섭취 허용량 = 최대 무독성량 ÷ 100

예를 들어 최대 무독성량이 10mg/kg이었다면: 일일 섭취 허용량 = 10mg ÷ 100 = 0.1mg/kg

최대 무독성량 찾기

동물 실험에서 특정 물질과 관련된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그 물질의 최대 섭취량

안전 계수

특정 물질의 안전성을 계산할 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

● 안전 계수 100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안전 계수가 왜 하필 100이냐고? 이걸 두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나온 숫자야.

① 동물과 사람의 차이 (×10)

쥐나 토끼 같은 실험 동물과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다르잖아. 같은 물질이라도 동물한테는 안전하지만 사람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차이를 고려해서 10배의 여유를 뒀.

②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 (×10)

같은 사람이라도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유전적 요인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 개인차를 고려해서 또 10배의 여유를 뒀.

안전 계수 = 10(종간 차이) × 10(개인 간 차이) = 100

이렇게 해서 최대 무독성량을 100으로 나눈 값이 일일 섭취 허용량이 되는 거야. 충분히 안전하게 여유를 둔 셈이지.

●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면 바로 위험한 걸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 ‘일일 섭취 허용량을 넘으면 당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일일 섭취 허용량은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한 양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초과해서 먹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야.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일일 섭취 허용량을 약간 넘는다 해도, 장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일일 섭취 허용량 이하로 먹으면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기 어려워.

쉽게 비유하자면, 다이어트할 때 하루 권장 칼로리가 2000kcal이라고 해서, 어느 날 2500kcal을 먹었다고 당장 살이 확 찌는 건 아니잖아? 장기적으로 평균을 맞추면 되는 거지. 일일 섭취 허용량도 비슷한 개념이야.

●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정리하자면, 식품 첨가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개념이야. 자연에서 추출한 것일 수도 있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일 수도 있지. 식품 첨가물은 식품 제조에 필수적이거나, 보존성을 높이거나, 맛을 좋게 하거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돼. 중요한 건 양이야. 모든 물질은 섭취량에 따라 안전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은 용량 반응 곡선을 통해 안전성을 파악하고,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식품 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일일 섭취 허용량은 최대 무독성량을 안전 계수 100으로 나눈 값이며, 이 안전 계수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times 10$), 사람 간의 개인차($\times 10$)를 고려해서 충분한 여유를 둔 거야. 그러니까 일일 섭취 허용량 이하로만 섭취한다면,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이지. 결국 식품 첨가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야.

○× 퀴즈

1. 식품에 남아 있지 않으면 제조 과정에서 사용했다라도 식품 첨가물로 볼 수 없다. (○ / ×)

답 ×

[해설] 완성된 음식에 그 물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식품 첨가물로 본다. 심지어 식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속독하는 데 쓰는 물질이 간접적으로 식품에 묻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도 식품 첨가물로 분류된다.